

# “종정예하에 간절히 예의 다해야”

###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무기관 사무식서 강조

“종정예하는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다. 종단 어른에 대한 예의는 간절히 지켜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사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정 스님에 대한 예의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교인 종교평화 선언과 관련해 공개편지를 주고 받은 도법·법안 스님과 종정예결실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사무식 슬로건은 ‘내가 바뀌면 불교가 변한다. 불교중흥 이룩하자’이다. 개인 단위의 자성과쇄신결사의 실천이 불교중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로마 방문 때 또랑 추기경이 교황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또랑 추기경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종단 어른에 대한 예의는 간절히 지켜야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한국불교는 개인화 개인불교 주지불교가 됐다. 종단 위계나 정체성 보다 자기 잘난 맛에 집착한다”며 “나보다 종단, 절보다 종단, 본사보다 종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무식에서 ‘기분·공심·위계·우리 함께’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출가자의 ‘기분과 하심’을

강조했다. 조계사 경내를 지날 때 신도들의 합장을 외면한 채 지나는 스님들을 언급하며 출가자라고 해서 신도들에게 인사만 받지 말라고도 말했다. 재가자들의 예의에 출가자 역시 예의로 답하라고 경계했다. 특히 스님은 “교역직 종무원들은 일반적 종무원(재가종무원)을 종단을 구성하는 파트너로 대우하라”고도 강조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일반적 종무원은 근태관리 등 시스템이 있지만, 교역직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교역직들이 부서 일에 책임감과 집중, 질실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교역직으로서 종무에 80% 이상 집중하고, 나머지 20%는 초하루 법회 등 사찰 일을 해 달라. 부서 일에 간절하게 소임을 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자성과 쇄신결사는 우리부

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길은 멀고 힘들다. 교역직 역시 일이 힘들겠지만 결사의 출발은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자성과쇄신결사로 함께 어울려 가기 힘들다. 힘을 모아 결집된 인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사무식을 통해 창종 50주년을 맞는 조계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사무식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종무원 대표로 박용규 총무차장이 새해를 여는 의미에서 축하떡 절단을 함께했다.

조동섭 기자 cctana@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1월 5일 해인사 신년하례법회에서 대중에게 당부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종정 법전 스님

## “화합 화두로 용맹정진하라”

### 법전 종정, 신년하례법회서 교시

“임진년 한 해도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서 불퇴전의 각오로 용맹정진 합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1월 5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신년교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종정 스님은 “종시(終始)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것이 사바세계의 시간공간(時間空間)이지만 중생계에 상주(常住)하면서 무사귀인(無事貴人)의 자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무사귀인은 언제나 나를 비움으로써 저절로 얻어지는 자리이고 서로를 낮춤으로써 서로에게 더욱 귀해지는 자리”라며 하심을 강조했다.

종정 스님은 “하늘의 운은 땅의 유리함을 이길 수 없고 땅의 유리함 역시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며 “임진년 한 해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불퇴전의 각오로 무사위(無事位)를 향해 용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교시에 앞서 법전 스님은 “조계종단의 대선지식이요, 해인총림의 어른으로 서당이신 지관 대종사의 열반을 삼가 애도하자”며 “실사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대종사의 가르침은 언제나 중천(中天)의 태양빛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니 속환사바 하서여 대원력을 성취하소서”라고 지관 스님을 추모했다.

조동섭 기자

## 백혈병 앓는 생후 10개월 박준서 군

### 생명나눔, 1월의 환우

준서는 10개월 된 남자아이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태어났기에 매우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준서의 부모는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며 알뜰살뜰 모아 작은 전세방도 마련하고 준서를 낳으면서 즐겁게 살았다. 그러나 준서가 생후 5개월경이 됐을 때 갑작스레 큰일이 닥쳤다.

돌도 지나지 않은 조그만 아이가 급성 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 준서는 바로 무균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7번이나 받았고 현재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준서 가족에게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은 치료비 문제다. 지금까지 치료비로 2400만 원이 발생했고, 향후 4500만 원



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준서의 부모는 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입이 전무한 상태. 알뜰히 모아 마련한 전세방은 치료비로 소진될 상황이다.

준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에 보건소 소아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치료비 마련을 위한 대출도 불가능하다.

치료비 때문에 어린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직 한국국적이 없어도 준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이웃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정성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에 피운 자비의 연꽃** 조계종 태국재난구호단(단장 종선, 이하 구호단)은 1월 5-8일 태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구호단은 5일 세계불교도우회 본부(WFBHQ)에 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하며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구호단은 WFB에 태국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빠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2달 가까이 물에 잠겨 훼손이 심한 나무 심기를 주요 행사로 진행했다. 이후 구호단은 6-7일 의료진료활동과 병행 돈무양 지역 등에서 복구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했다.

조동섭 기자

## 경주문화재研, ‘신라의 금동불’ 발간

### 금동불 86점 제작기법 등 담겨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금동불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는 최근 신라 불교문화재 기초조사 사업의 하나로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금동불의 성격과 양식적 특징 등을 정리한 ‘신라의 금동불’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경주 지역 내 신라의 옛 사찰(황룡사지 등 11개소)과 왕경의 주

요 유적(월성 등 5개소)들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86점의 금동불을 수습했다. 책에는 이들 금동불의 개요, 출토 당시의 모습, 개별 금동불에 대한 설명, 금동불의 제작 기법 등 기본 자료들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연구 논문 2편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발간 자료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 “의궤 환수에 이상득 의원 도움 컸다”

1월 5일 조선왕실의궤가 전시된 국립고궁박물관에 환수위원회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사무처장 해문 스님과 의궤 반환에 힘쓴 주역들이다.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해문 스님은 “이상득 의원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반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이 의원은 막후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적 타협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과 환수위원회 회원들은 해문 스님 안내를 받으며 조선왕실의궤와 도서 등 반환된 문화재를 관람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법당 및 사찰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마루 시공불사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칭 \*틈메꾸기 \*도정작업 2회 \*완료

### 강화마루



### 법당,전각 타설 복원 불사



\*이송작업 \*보강작업 \*타설작업 \*복원작업 \*시공완료

### 필름온돌



밖은 세상 서울시 종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